2015년 6월 15일 새벽 편집본 정리 말씀

사람들이 시험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기도하라고 그런 환경에 부딪히는 것도 있고, 어느 때는 자기가 강해지지 않으면 감기에 걸립니다. 강하면 감기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런 것이 없어집니다. 정신에서 누르면 육신에서 누르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애기 안 해도, 가만히 있어도 인간 본질의 개인의 책임분담을 함으로 힘이 생깁니다. 그 힘만 가지고도 이깁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기도를 하고 나가는 사람들은 웬만한 것은 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몸부림치고, 힘들어합니다. 정신이 눌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흑암까지 동참해서 흔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그로 인해서 이겨 나갑니다. 평소에 늘 얼마나 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늘 하나님께서 기본으로 역사를 더 하십니다.
신앙을 어떤 사람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인생살이를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쉽게 사는 사람이 있는 것은, 자기의 하는 여하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애들을 보면 작은 것을 가지고도 힘들어 하고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큰일도 그냥 무난하게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만큼 정신을 누르고, 기도하고, 행동하면서 가니까 늘 유능해진 손발을 가지고 다스려 나가니까 쉽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국이 오고, 아무리 메시아가 오고, 아무리 이 시대가 뒤바뀌고 누가 왔어도 본인이 늘 변화되지 않고 그런 환경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뛰고 달리고 할 때에 큰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염려를 하면 자꾸 염려가 옵니다. 기뻐하면 기쁨거리가 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그렇게 번민하고..."
내가 상당히 번민하는 머리통입니다. 걱정하는 머리통이고. 뭘 보면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는 그런 머리입니다. 완전히 꼬치꼬치 뭘 해도 밤새도록 생각을 합니다. 밤새도록 생각하면서, 그냥 해 버리면 되는 것도 걱정을 또 하고 또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근심은 근심을 낳고, 고독은 고독을 낳고, 번민은 번민을 낳는 것이다. 기쁨은 기쁨을 낳는 것이다. 니가 자꾸 고민과 걱정을 하느냐?"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선생님께서 온 인류의 근본을 해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 머리가 안 아프다는 것입니다. 다 풀립니다. 이 지역이 다 그러던 지역인데, 이 지역이 이제는 다 완전히 기쁨의 환희의 거리가 되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던 장소가.

금주의 말씀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발동이 걸려라. 옆 사람이 애기해서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나는 늘 복으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켜서는 못한다. 너희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야된다. 시켜서 하는 일은 힘들다. 나도 자발적으로 역시 그랬다. 시켜서 한 것은 안 된다."
대개 보면 결정을 못할 때, 어렵습니다. 결정을 못 할 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다 하늘 앞으로 기울

어져야 됩니다. 그게 최첨단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나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책임분담까지 몽창 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최고 첨단의 방법입니다.

지난주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보지 말고 그냥 열심히 하다보면, 하나님의 책임분담이면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다가 막 힘을 주고. 그러나 책임분담이 아닌 것은 안 도와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게 하나님의 책임분담인지, 어떤 게 아닌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혼자서 할 생각하고 하다보면, 하나님께서 책임분담을 거기에 부합시킬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큰 것이 무엇인고 하니, 자기가 하는 것이 큽니다. 의욕심도 있어야 되고, 욕심도 있어야 되고, 해욕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할 수 있는 것을 준 것은, 책임분담은 그것은 복덩이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책임이고, 어떤 것이 아닌지 이것을 모릅니다. 선생님이 이것을 다년간 연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 ‘다 내 책임이다.’ 하고서 하면, 알아서 내 것은 해 줄 것이 아니냐. ”

책임분담이라는 문제는 굉장히 큰 삶의 교리입니다. 기독교가 현재 책임분담을 모릅니다. 다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니까 자포자기합니다.

사람이 정신 교육이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가야 됩니다.
몸부림치면서 막 기쁨으로 가는데, 그래도 어려움이 있고, 가로막히는 것이 있고, 거기에다 언덕까지 만났습니다. 그러면 뒤에다 괴어 받치고, 잡아당기고 하다보면 그 기간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옆에서 보십니다. 그럴 때 기도도 해야 됩니다. 사탄이 방해하지 못하게.

우리가 꾸준히 일만 하면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누가 막 방해하고 막 대들고, 적들이 와서 칼을 가는 놈이 있고 총을 쏘는 놈이 있습니다. 이때가 무섭습니다.
그때도 역시 하나님은 옆에서 지켜봅니다. 일은 안 도와줘도 지켜는 봅니다.

그만큼 생명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못 잡아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어떤 죽음의 사지의 결단을 내릴 때는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생명록에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과 온 지구상에서 말씀 듣는 모든 자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서 본인들이 딱 발동을 걸고, 본인들이 시작해야지 옆의 사람이 자꾸 얘기하면 옆의 사람도 민망합니다. 자꾸 하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서 탁탁 해 줘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 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도, 가정 일도, 내 일도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의로 채워주시

옵소서.
다니엘은 강했습니다. 본인들이 강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강하지 않으면 가다가 꺾인다고 했습니다. 사탄에게 밟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총과 은혜로 채워 주시고, 의로 채워 주시옵소서. 전국과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세계가 그리함을 믿습니다. 온전케 해 주시고, 의와 사랑과 공의와 진리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심했습니다. 하나님께 아침마다 영광 돌리며,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더욱 찬란한 빛을 비추기 위해서 개인 기도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노래하며, 하나님께 찬양키로 했습니다.
전국과 온 지구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니 의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상과 이상을 실천함이 충만하게 해 주시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앞날의 구상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이방의 세계, 저방 세계, 민족, 그리고 섭리사 모든 각종 각색이 시험 들지 않게 해 주시고, 민족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섭리를 기억하사 일일이 하나님께서 체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일일이 내가 무섭게 사로잡고 가야되겠으니 의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